
민족문제와 민중신학

■ 1990년대를 맞이하면서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는 ‘민족문제의 시대’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고 외세에 의한 분단의 고통을 당해온 우리의 처지에서 민족자주화와 민족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활성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요즘 민족문제를 논의하는 사람들의 말을 찬찬히 훑어보면 피 낙관적인 견해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1980년대말부터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주도해온 세계적 규모의 데탕트가 독일 통일을 어느 정도 가시화시켰고, 이러한 데탕트의 영향이 한반도에 어느 형태로든 미치리라는 것이 그 논거인 듯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소련과 미국 그리고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나토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서관계의 개선이 지구의 남과 북을 가르는 빈국과 부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남북관계의 모순을 격화시킬 수 있고, 이러한 모순의 격화는 한반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한 견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문제가 단순한 체제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외세와의 관련에서 인식되어야 할 문제라는 것을 감안해볼 때, 오늘날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현

상은 주의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민족문제와 민중신학’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지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민족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생님께서 민족의식이라고 할까, 민족감정이라고 할까 하는 것을 어떤 계기로 갖게 되었는데 이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민족문제에 눈을 뜰 때까지

□ 1930년대에 일제의 꼭두각시인 만주국이 창설되었을 때, 일본인들이 민족감정을 이용하여 교묘하게 통치하던 것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 당시 만주에는 일본인, 조선인, 몽고족, 러시아인, 만주족 등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우수하고, 조선인들이 그 다음이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만주족은 가장 열등하다는 식으로 민족서열을 만들었지요. 일본인들은 음식의 차이, 품성의 차이를 들먹이면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렇게 한 까닭은 폭력적으로 침략하는 제국주의 아래서도 ‘민족’이라는 것은 함부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통치하려고 한 데 있었던 것이지요. 저는 사소한 문제에서도 민족감정이 맞부딪치면 격렬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도 ‘민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의식했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독립투쟁에 대한 경험을 들 수 있어요. 그 당시 민족독립을 위해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합작하여 일제에 대